

Q 양돈인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협회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돼지라고 하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엇인가 문의를 하고 싶어 협회의 문을 노크해 봅니다.

모돈 20두를 목표로 양돈을 시작하고 있는 작은 규모의 농장입니다. 84년 1월 TGE라고 하는 병이 지난후 모돈들이 별로 상태가 좋지를 못합니다. 허약자돈을 분만하거나 사산이 많이 배출되고 중부후 10여일이 지나면서 배뇨시 농이 섞여 나오고 20여일이 되어가면 수태가 되었다가 유산이 되곤 합니다. 책자를 보니 자궁내막염과 방광염이라고 하는데 이 예방법과 약제를 좀 알수가 없을까요? 분만시 옥시토신 항생제를 사용한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사용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항생제를 쓰면 유량이 줄고 젖이 보트는 수가 있다기에 써 보지를 못했습니다. 수의사에게 물으면 포유모돈에게는 항생제를 쓰지 않는게 좋다는데 어떤 방법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항생제는 포유모돈에게 어떤 것을 써야 합니까?

저는 협회의 회원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친구가 보는 양돈지를 빌어다 보니 질의응답 코너가 있어서 문의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이만 필을 놓을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남 해남군 마산면 북창리 권성래)

A 보내주신 서한 잘 읽어 보았습니다.

양돈을 시작하시고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양돈가에게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고, 특히 돼지의 여러가지 많은 질병을 대하다 보면 아연실색할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중 돼지에 있어서 유산 및 사산증은 양돈에 있어서 골치 아픈 존재로 가히 암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산 및 사산증을 번식장애라고 일컫는데 번식장애에는 물론 유산, 사산증외에 분만모돈에 있어 이유후 발정이 오지 않는 것, 수정후에 재발정이 나타나는 것, 미이라, 복당산자수의 저하, 생후자돈의 생존율이 떨어지는 것 등도 포함됩니다.

이 원인들을 보면 바이러스성, 세균성, 곰팡이성, 기생충성, 유전성, 영양 및 대사성, 사양관리의 실의 및 번식생리의 이상등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유·사산증의 가장 뚜렷한 원인중의 하나가 바이러스이며 대부분의 유·사산증은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산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열거해 보면 돼지 일본뇌염, 돼지 파보바이러스, 파라인프루엔자, 돼지 전염성위장염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이러한 바이러스에 의하여 1차적으로 유산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자궁내막염은 자돈이 분만될때 자돈의 발굽같은 것에 의해 물리적인 손상을 받아 모돈이 세균이나 곰팡이등에 의하여 2차적인 감염을 받게 되고,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궁이나 질부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과로 인해 자궁내 조건이 나빠지게 되므로 수정이나 착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약화

일로를 걷게되는 질병의 일차적인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은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시판되고 있는 우수한 예방약(백신)으로 철저히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그 예방법은 많은 연구가 되어 잘 소개되어 있으므로 수의사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좋은 자문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균이나 곰팡이 감염에 의한 자궁내막염은 항생물질이나 세척소독제로 철저히 치료하시면 비교적 양호한 경과를 취하게 되고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료약제로는 항생물질, 세척소독제, 질내나 자궁내로 직접 삽입하는 보러스(환제)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러스는 우레아와 각종 항생제나 설파제를 섞어서 만든 것으로 자궁이나 질부 깊숙이 삽입하여 치료목적을 취하게 되는데, 특히 후산정체등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시판되는 것으로는 유테러스보러스, 메타보러스등 상품명외의 수입제품이 대부분입니다. 세척소독약제로는 요오드계열의 베타딘등 우수한 소독제가 시판되고 있는바 증류수 등에 정량을 희석하여 카테터(고무관)를 사용하여 자궁내 및 질내를 수회 세척하게 되면 치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항생물질을 주사하면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생물질은 그 안정성이 모두 검토되어 생산·시판되고 있으므로 거의 부작용이 없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나, 제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설명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것은 전문가에게 상의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여도 웅돈(수태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면밀히 살

펴보아 종부에 이용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분만시 어미가 건강하여 자유로이 분만이 유도되고 이러한 경우는 별문제없이 어미와 자돈이 건강하게 되나 인공적으로 너무 큰 힘을 주어 분만을 유도하거나 옥시토신제등의 약제로 자궁 수축력을 이상적으로 증대시키면 자궁내의 손상으로 균에 의한 감염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궁내막염등 염증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렇듯 번식장애는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고 내부에 문제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약제로 예방·치료등을 병용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특히 호르몬제등의 사용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므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유경험자가 적당량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만 합니다. (응답자: 농진청 가축위생연구소 병독과장 김용희 박사)

돼지·소출하안내



**잘 길러
잘 팔자**

정확한 시세 정보
높은 지옥을
신속한 운반
계류, 도축, 경매 관리철저
친절한 판매상담
시간, 경비 절약

사단
법인 **대한양돈협회**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8-10
☎ 294-5060 (0)982-8043 성남 48-3216